

## 베니스의 상인

### 앞부분의 줄거리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마사니오로부터 포셔에게 청혼하기 위한 여비를 부탁받는다.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은, 돈을 갚지 못했을 때에 안토니오의 살 일 파운드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 준다.

포셔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청혼자에게 금, 은, 납으로 만든 세 개의 상자 가운데에서 어느 상자에 자신의 초상화가 들어 있는지 선택하게 하는데, 마사니오가 고른 납 상자 속에 초상화가 들어 있었다.

한편, 안토니오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법정에서 서게 된다. 샤일록이 법정에서 안토니오의 살 일 파운드를 끝까지 요구하여 안토니오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그때, 판사로 변장한 포셔가 재판을 하기 위하여 법정에 온다.

곳: 베니스의 법정

나오는 사람들: 공작, 포셔(돈 많은 여 상속인), 샤일록(돈 많은 유대인), 안토니오(베니스의 상인), 마사니오(안토니오의 친구), 그라시아노(안토니오와 마사니오의 친구)

### 제 4막 제 1장

(판사 차림의 포셔, 손에 책을 한 권 들고 등장한다.)

공작: (포셔를 쳐다보며) 아, 저 사람이 그 판사인가 보군. (포셔에게) 어서 오시오.

벨라리오 박사께서 추천하신 분이오?

포셔: 그렇습니다, 각하.

공작: 잘 왔오. 자리에 앉으시오. (시종이 포셔를 공작 옆에 있는 책상으로 안내한다.)

현재 이 법정에서 심의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선 들어 보았소?

포셔: 소상히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상인이고, 어느 쪽이 유대인입니까?

공작: 안토니오와 샤일록, 앞으로 나오게나.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공작에게 인사를 한다.)

포셔: (샤일록을 보며) 그대 이름이 샤일록인가?

샤일록: 네, 그렇습니다.

포셔: 괴상한 소송을 제기하였더군.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베니스의 법률로써 비난할 순 없소. (안토니오에게) 당신의 목숨이 이 사람의 손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안토니오: 네, 저 자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셈입니다.

포서: (증서를 살펴보며) 이 증서를 인정하는가?

안토니오: 인정합니다.

포서: (샤일록에게) 그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떻겠소?

샤일록: 왜 제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서: 자비라는 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대지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것이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 같이 축복하는 것이니 미덕 중에서도 최고의 미덕이며, 왕관보다 더 왕을 왕답게 해 주는 것이오. 그대가 호소하는 바는 정의이지만, 정의만 내세우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의를 요구하는 그대의 경직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해서인데, 만일 그대가 자비 없는 정의만을 고집한다면, 이 엄격한 베니스의 법정은 부득이 저 상인에게 불리한 선고를 내리지 않을 수 없소.

샤일록: 제 행위에 대한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법에 호소합니다. 이 증서대로 이루어지길 요구합니다.

포서: (바사니오에게) 안토니오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가?

바사니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에서 제가 대신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원금의 두 배를 지불하지요. 아니, 열 배라도 내라면 내겠습니다. 제 손, 제 머리, 제 심장을 담보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의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악이 선을 짓밟고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든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잔인한 악마, 샤일록의 욕심을 막아 주십시오.

포서: 그럴 순 없소. 베니스의 어떤 권력도 이미 정해진 법을 바꿀 순 없소. 그것이 판례로서 기록되면 많은 위법 행위가 반복 될 테니 그럴 순 없소. (샤일록에게) 어디 그 증서를 좀 보여 주시오.

샤일록: (자기 가슴에서 증서를 재빨리 꺼내며) 네, 여기 있습니다. 공정하신 판사님, 이것입니다.

포서: (증서를 받으면서) 샤일록, 이 금액의 세 배를 갚는다면 어떻게 할 거요?

샤일록: 맹세, 맹세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를 어긴 죄를 제 영혼에 뒤집어씌우시려면 몰라도 그건 안 됩니다. 베니스를 다 준다 해도 안 되지요.

포서: (증서를 들여다보며) 이 증서에 따르면 기일이 넘은 게 확실 하군. 이 상인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살을 일 파운드 떼내겠다는 이 유대인의 주장은 정당하오. (샤일록에게)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돈을 세 배 받고 이 증서를 찢어 버리는 게 어떻겠소?

샤일록: 증서의 내용대로 빛이 청산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리께선 참으로 훌륭하신 판사이십니다. 법에 따라 집행해 주십시오. 나리께선 법률의 대들보이시니 제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지만, 사람의 입으로선 제 결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증서대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안토니오: 저도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법에 따라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포셔: 정 그렇다면 도리가 없군. (안토니오에게) 가슴을 열고 저 사람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시오.

샤일록: 오, 훌륭한 판사님! 젊으신 분이 어쩔 저리 훌륭하실까?

포셔: 법의 취지와 목적으로 보아, 이 증서에 기록된 대로 집행되어야 마땅하오.

샤일록: 과연 그렇습니다. 오, 슬기롭고 공정하신 판사님! 정말 속이 깊으신 분이야.

포셔: (안토니오에게) 상인은 가슴을 여시오.

샤일록: 옳습니다. 바로 거기예요. 증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포셔: 옳은 말이오. 살덩어리의 무게를 달 저울은 준비가 되어 있소?

샤일록: 네, 준비해 왔습니다.

포셔: 샤일록, 그대가 돈을 내고 의사를 불러 오시오.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피가 많이 흘러 죽을지도 모르니까.

샤일록: 증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증서를 달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포셔: 그런 말은 없지만 없으면 어떤가? 그 정도의 자비를 베푸는 일은 당신에게도 좋지 않겠소?

샤일록: 그런 글귀는 없습니다. 증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증서를 포셔에게 돌려준다.)

포셔: (안토니오에게) 남길 말은 없나?

안토니오: 별로 없습니다. 각오는 이미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바사니오 쪽으로 몸을 돌리며) 손 좀 이리 주게, 바사니오. 잘 있게, 친구. 자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슬퍼하지는 말게. 운명의 여신이 평소보다 나에게 더 큰 친절을 베푸는 것 같네. 흔히, 완전히 망한 가엾은 사람을 오래오래 살게 해서, 눈은 꼭 꺼지고, 이마엔 굵은 주름살이 잡히고, 가난한 노년을 겪게 만드는 것이 운명의 신인데, 나는 그런 비참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겪을 고통을 면하게 되었으니 말일세. (두 사람 포옹한다.) 훌륭한 부인에게 안부 전해 주게. 이 안토니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전해주게. 그리고 안토니오가 당당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 주게. 자네가 친구를 잃는다고 슬퍼만 해 준다면 난 자네의 빛을 갠 걸 결코 후회하지 않겠네. 저 유대 인이 가슴 깊숙이 찔러 준다면 난 내 심장을 바쳐 빛을 갠게 될 테니까-----.

바사니오: 아, 안토니오, 나에게 내 아내가 생명처럼 귀중하네. 하지만, 생명도, 아내도, 온 세상도 자네보다 더 소중할 순 없어. 난 모든 걸 잃어도 좋아. 내가 자넬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저 악마에게 주어도 상관 없네.

포셔: 바로 저 상인의 살 일 파운드가 그대의 것이오. 이 법정이 그럭 인정하고 법이 보장하오.

샤일록: 과연 공정한 판사님이시다!

포셔: 그대는 살을 저 사람의 가슴에서 잘라 내도 좋소. 법이 그걸 인정하고 법정이 그걸 허락하오.

샤일록: 박식한 판사님! 판결이 났다. 자, 각오해라. (칼을 빼어 들고 앞으로 나온다.)

포셔: 잠깐, 기다리시오. 이 증서엔 피는 단 한 방울도 당신에게 준다는 말이 없소.

여기에는 ‘살 일 파운드’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소. 증서대로 살을 일 파운드만 떼어 가시오. 다만, 살을 떼어내면서 이 상인의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한다면, 그대의 토지와 재산을 베니스의 법률에 의하여 몰수할 것이오.

그라시아노: 오, 공명정대한 판사님이시다! (샤일록에게) 들었느냐?

샤일록: 이게 법인가요?

포셔: (법전을 들어 보이며) 그대가 직접 법조문을 들여다보시오. 그대는 정의를 고집했으니, 그대가 원하는 대로 정의롭고 엄격한 재판을 받을 것이오.

그라시아노: 오, 박식한 판사님이시로다! 현명한 판사님!

샤일록: 아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의 세 배를 받고, 저 상인을 풀어 주겠습니다.

바사니오: 옳다, 돈! 여기 있다.

포셔: 잠깐! 샤일록이 받는 건 정의의 판결뿐이오. (법정을 둘러보며) 조용히 하시오. 증서에 적힌 것만 받도록 허락하겠소.

그라시아노: 어쩌냐, 나쁜 놈아! 공정한 판사님이시로다!

포셔: 어서 살덩이를 떼어 낼 준비를 하시오.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되오. 그뿐만 아니라, 살을 정확히 일 파운드만 떼어 내야 하오. 일 파운드보다 많거나 적으면 안 되오. 그 무게가 가볍거나 무거워서 저울대가 불과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기울어진다면 그대를 사형에 처하고 그대의 전 재산을 몰수할 거요.

그라시아노: 명판사님께서 돌아오셨다. 샤일록, 이 나쁜 놈아! 꿈쩍 못 하게 되었구나.

포셔: 어찌하여 주저하는가? (샤일록에게) 어서 가져가시오.

샤일록: (울먹이는 목소리로) 원금만 받고 가게 해 주십시오.

바사니오: 돈은 준비돼 있다. 옳다, 가져가라.

포셔: 저 사람은 이 공개 법정에서 이미 그걸 거절했소. 그러니까 증서대로 정당한 담보물만 주면 그만이오.

샤일록: 원금만이라도 받을 수 없겠습니까?

포셔: 그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증서에 적혀 있는 것뿐이오. 살 일 파운드뿐이란 말이오. 그것도 그대의 생명을 걸고서.

샤일록: 제기랄, 마음대로 하시오! 더 이상 영터리 재판에는 응하지 않겠소.

(돌아선다.)

포셔: 기다리시오. 이 법정은 아직 그대를 퇴정시킬 수는 없소. (법전을 읽는다)

베니스의 국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소. 외국인이 베니스 시민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생명을 노린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 그 사람의 재산의 반은 생명을 빼앗길 뻔한 시민의 소유가 되고, 나머지 반은 국고로 몰수되오. 그리고 범인의 생명은 오로지 공작님의 마음에 달려 있소. 어느 누구도 이에 간여할 수 없소. (법전을 덮는다.) 그런데 지금 그대의 상황은 이러한 법조문에 해당되오. 왜냐 하면, 그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상인의 생명을 노렸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어서 무릎 꿇고 공작 각하의 자비를 구하시오.

공작: 그대가 간청하기 전에 생명만은 살려 주겠다. 재산의 반은 안토니오에게, 나머지 반은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벌금형을 내려줄 수도 있다.

포셔: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만 감해 줄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의 몫은 별개입니다.

샤일록: 아닙니다. 제 생명이고 뭐고 다 가져가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빼 가 버리면 집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제가 살아갈 재산을 빼앗아 가면 그게 바로 제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포셔: 안토니오, 그대는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소?

그라시아노: 아무것도 주지 말게.

안토니오: 존경하는 공작님, 그리고 이 법정에 참석하신 여러분, 국고에 귀속될 저 사람의 재산 절반을 돌려주고 벌도 면해 주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반은 제가 관리하고 있다가 최근 그의 딸과 결혼한 젊은 사람에게 양도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공작: 그렇게 하도록 하지.

포셔: (샤일록을 보며) 그대는 만족하오? 이의없소?

샤일록: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의 없습니다.

포셔: (서기에게) 서기, 양도 증서를 작성하십시오.

샤일록: 간청드립니다. 여길 떠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몸이 좋지 않아서요. 증서는 집으로 보내 주세요. 서명하겠습니다.

공작: 가도 좋네. 그러나 약속을 지켜야 하네.

(샤일록 퇴장한다.)

소상히  
미덕  
경직된  
담보  
판례  
위법

청산되고  
집행해  
노년  
몰수할  
법조문  
퇴정시킬  
국고  
간여할  
귀속될

☼ ‘베니스의 상인’을 다시 읽고, 공부하여 봅시다.

1. ‘베니스의 상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 (1) 샤일록이 꺼낸 증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 (2)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 (3) 포셔는 자비를 베폴라는 말을 거절한 샤일록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 (4) 샤일록이 원금만이라도 받게 해 달라고 간청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 (5) 공작은 샤일록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2. ‘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난 다음 등장 인물의 의견을 정리하여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시다.

안토니오	
샤일록	
포셔	
그라시아노	
바사니오	

3.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등장 인물 가운데에서 한 명을 골라, 내 의견이 드러나게 짧은 편지를 써 봅시다.

☼ ‘베니스의 상인’을 다시 읽고, 공부하여 봅시다.

1. ‘베니스의 상인’을 읽고, 등장 인물에 대하여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 받아 봅시다. 그리고 친구들의 의견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다.
2. 역할을 정하여 ‘베니스의 상인’을 연극으로 꾸며 봅시다.

3. 연극을 하여 보고 연극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하여 봅시다.

읽기 5-2 164 쪽